

#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10
IV. 국제신인도 .....	15
V. 종합의견 .....	17

## I. 일반개황

면적	924천 km <sup>2</sup>	GDP	2,778억 달러(2012년)
인구	164.8백만 명(2012년)	1인당 GDP	1,686 달러(2012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aira(N)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156.81(2012년)

-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아프리카 최대인 1억 6,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니제르, 베냉, 카메룬과 접경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2011년 말 기준 372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와 5.1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9위)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2003년 이후 고유가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은 큰 편이나,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치안 불안 등이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1년 4월 대선에서 당선된 조나단 대통령이 7월에 내각 구성을 완료하면서 대선 직후의 극심한 정치 불안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최근 Boko Haram 등 과격 이슬람단체의 폭탄테러 공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e</sup>
경제성장률	6.0	7.0	7.9	7.5	6.6
재정수지/GDP	1.5	-4.2	-5.9	-4.2	-3.6
소비자물가상승률	11.6	12.5	13.7	10.8	11.5

자료: IMF, EIU.

□ 정정 불안, 인프라 부족, 홍수 등의 영향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6%대로 둔화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 부문이 GDP의 30%,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국제유가 등락과 산유량 증감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석유부문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농업은 GDP의 30.5%(2012년 추정치)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2007~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 농업, 금융서비스 등 비석유 부문의 호조, 내수 증대,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6% 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9년에는 OPEC의 원유감산 결정과 국제유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농업, 통신업 등의 호조로 7.0%의 성장률을 시현하였고,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부문의 회복과 농업, 서비스업 등 비석유부문의 성장세 지속으로 7.9%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통신·건설·금융업 등 비석유부문의 호조가 이어져 7.5%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2년에는 주요 유전지대인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의 고질적인 정정 불안, 산업 발전 속도를 커버하지 못하는 인프라 부족의 지속 및 하반기의 심각한 홍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그리고 연초에 정부의 유류 보조금 삭감으로 유발된 전국적 파업 사태 및 그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6.6%로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적자 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원유 수출에 의한 재정수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 흑·적자 여부와 폭이 결정되고 있음. 최근에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1.5%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이 위축된 반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2009년 GDP 대비 4.2%의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0년에는 적자규모가 더욱 증가하여 GDP 대비 5.9%로 악화되었음.
- 2011년에도 공무원 급여 인상, 2011년 4월 대선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4.2%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적자폭이 GDP 대비 3.6%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홍수로 인한 식료품가격 상승 등으로 두 자릿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소비자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및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상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간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식료품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선을 앞두고 정부지출의 증가까지 겹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7%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2011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노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10.8%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연료와 전력에 대한 보조금 감축 및 하반기의 대홍수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상승한 11.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에는 전년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면서도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 정부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및 농업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구조가 여전히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음.

#### □ 전력 부족 등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경제발전 저해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특히 수송 인프라와 전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함.
  -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빠른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로, 철도 등 수송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급증하는 운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화물의 내륙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전력공급능력은 4,500MW 정도로 우리나라 전력공급능력의 약 5%에 불과한 실정이며, 발전설비 노후화로 정전이 수시로 발생하고, 인구의 50~60%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계도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는 실정임.
  - 원유 및 전력의 국내공급 부족으로 국민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시골 지역에서는 목재, 석탄 등 가연성 재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년간 황폐화되는 산림 면적이 전체 산림 면적의 약 4%에 육박함.
- \* 주요 원유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시설의 유지, 관리가 부실하여 국내 공급기반이 매우 열악함.

## 나. 성장 잠재력

### □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가스 자원 부국

- 나이지리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372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와 5.1조 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9위, 아프리카 1위)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향후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유전개발의 중심국가임.
  - 원유 매장량은 리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2위이나, 원유 생산량은 246만 b/d(2011년)로 아프리카 1위임.
  - 원유의 약 90%가 남부의 니제르 델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주로 Chevron, ExxonMobil, Total 등 석유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개발·생산되고 있음.
  - 세계 8위의 원유수출국으로 생산된 원유의 90%를 수출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27.7%), 인도, 브라질 등임. 최근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 및 아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나이지리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 나이지리아는 현재 세계 제5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으로, 2010년 1,797만 톤 및 2011년 1,886만 톤의 LNG를 수출하였음. 주요 수출대상국은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나, 201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 내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본의 LNG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1999년 9월 보니 섬(Bonny Island)에 38억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최초의 LNG 생산시설이 완공된 이후 2008년에 6번째 생산시설이 완공되면서 연간 2,200만 톤의 LNG 및 400만 톤의 액화석유가스(LPG)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 나이지리아 남부 Bayelsa 주의 Brass LNG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들이 오는 4월 최종 투자결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짐. 총투자액은 최대 150억 달러 규모로, 완공까지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간

1,000만 톤의 LNG를 20년간 생산할 계획인 동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나이지리아의 총 LNG 생산량은 연간 3,000만 톤을 상회하여, 카타르에 이은 세계 제2위의 LNG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 아프리카 제1의 인구대국으로 풍부한 내수시장 보유

-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11년 기준 약 1억 6,600만 명으로 아프리카 최대이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세계 제7위임.
  -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이 2010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 나이지리아의 인구가 2억 8,900만 명으로 늘어나 인도, 중국, 미국,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제5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또한 최근의 고성장으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구매력 확대에 따른 내수증대가 성장잠재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정부는 4월의 대선을 앞두고 2011년 3월 최저임금을 종전 월 7,500나이라(약 50달러)에서 2배가 넘는 18,000나이라(약 120달러)로 대폭 인상하여 구매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
  - 통신업, 금융업 등 비석유산업의 성장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중산층의 확대는 내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 - 세계 20대 경제국으로의 도약 목표

- 2009년 10월에 정부는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Nigeria Vision 20: 2020)' 발표를 통해 2020년에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부족, 부정부패 등 경제성장 저해요소 개선,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 2011년 6월 Morgan Stanley는 국제유가 상승,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나이지리아가 2025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월하여 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음.
- 특히 건설 부문은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생산량 확대로 오일머니가 증가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해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까지 12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공급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난 지속**

-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공급량 확대를 추진하여 왔음.
- 화력·수력·가스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정부의 전력공급능력 확충 노력에 힘입어 2004년 2,500MW에서 2010년 3,300MW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4,300MW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그러나 2010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은 135kWh로 주변국 가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질적인 전력난은 지속되고 있음.

**□ 실업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상승 추세**

- 정부는 20%대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업률은 상승 추세에 있음.
- 2011년 말 기준 실업률은 21.1%를 기록했으나 2011년 말 23.9%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취업자도 약 60%가 농업 부문에 편중되어 비농업 부문에 숙련된 인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부문 개혁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

- 2012년 초에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 부문의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식량확보 및 농촌경제 발전 등 농업 회생을 이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농업



개혁실행계획(ATAP) 추진으로 2015년까지 350만 개의 일자리와 2,000만 톤의 식량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또한 2012년 2월 조나단 대통령은 심각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3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공공사업/여성과 청소년 일자리 창출'(PW/WYE)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여하여 전력부문 일자리 5만 개와 침식 방지, 쓰레기 처리, 위생관리, 나무심기 부문 등에 3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 비석유 부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

- 2013년 2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미국 General Motors와 남동부 Calabar 시에 10억 달러 규모의 전기 터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동 투자는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생산된 전기터빈은 나이지리아 오지의 전력 공급용으로 보급되어 전력 사정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3. 대외거래

#### □ 상품수지 흑자폭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 유지

- 석유산업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상품·경상수지의 흑자 폭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상품·경상 수지는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해 왔으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2010년에도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각각 302억 달러와 13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자본재 등 상품수입 증가와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약 87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2년에는 상품수출이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상품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약 139억 달러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e</sup>
경 상 수 지	29,112	13,821	13,260	8,686	13,851
경 상 수 지 / GDP	14.1	8.2	5.8	3.6	5.0
상 품 수 지	45,885	25,342	30,247	30,839	37,705
수 출	85,729	56,121	76,450	92,470	91,667
수 입	39,844	30,779	46,203	61,631	53,962
외 환 보 유 액	53,002	44,763	34,919	35,212	42,874
총 외 채 잔 액	11,334	7,713	7,883	9,639	9,445
총 외 채 잔 액 / GDP	5.5	4.6	3.5	4.0	3.4
D S R	0.6	0.7	0.4	0.4	0.6

자료: IMF, EIU.

□ 외환보유액은 2012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증대, 외국인투자 유입 등으로 개선

- 외환보유액은 원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530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2009~10년 나이라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2011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352억 달러 까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비율도 2009년의 8.3개월에 비해 대폭 하락한 3.9개월로 악화되었음.
- 2012년에는 상품수지 흑자의 확대, 하반기 들어 외국인투자 유치의 호조 등에 힘입어 연말 외환보유액이 4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개선되면서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비율도 4.9개월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상황은 채무재조정 노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상태

- 2000년대 초반에 50%를 상회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정부의 채무재조정 노력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대폭 하락하여 2012년 말 3.4%로 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2009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도 2011년 14.16%에서 2012년에는 13.26%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잔액은 2009년 이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소요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D.S.R은 2012년 말 0.6%로 추정되어 전년 말의 0.4%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 미만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여당 내 세력다툼, 정부와 야당간 갈등으로 정치 불안 잠재

- 2011년 대선은 당초 1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선거준비 부족과 폭력 사태 등을 이유로 2차례 연기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안이 심화되었음.
- 대선에서 집권당인 인민민주당(PDP)의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 58.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선거 직후 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반발한 폭동이 발생하였음.
  - 선거 과정에서 미성년자 투표, 투표함 빼돌리기 등 50여 건의 부정행위가 신고되었고,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 측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선거 시비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유혈 폭동이 발생하여 800여 명이 사망하고 65,0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2011년 7월에 Jonathan 대통령이 그 동안 지연되어 오던 행정부 구성을 완료하고 신임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등 대선 직후의 극심한 혼란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인민민주당 내 북부 지역 출신들의 불만이 잠재되어 있음.

- 인민민주당에는 남부와 북부 지역 출신의 인사가 대통령직을 8년씩 번갈아 맡는다는 목계가 있는데, 북부 출신 회교도인 야라두아 전 대통령이 재선하지 못하고 병사함에 따라 차기 대선 후보는 북부 인사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2011년 1월 인민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불균율이 깨지고 남부 지역 출신의 Jonathan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음.
- 2012년 10월 의회에 제출되어 수정을 거쳐 12월 의회를 통과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Jonathan 대통령이 야당의 예산안 수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승인을 거부한 끝에 2013년 2월 말에야 비로소 승인하는 등 정부와 야당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음.
- 2013년 2월 나이지리아의 4개 주요 야당들은 오는 2015년의 대선 및 총선 실시 전까지 합당을 통해 거대 단일 야당을 탄생시켜 집권 여당을 패퇴시키고 정권 교체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와 야당의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여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Jonathan 정권은 높은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개선하고 빈번한 테러 공격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정국을 수습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 3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공공사업/여성과 청소년 일자리 창출(PW/WY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Jonathan 대통령은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Boko Haram의 진압 여부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중 150여 명이 테러공격으로 사망한 이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방부 장관 및 국가안보부 장관을 해임하였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극심한 빈부격차 및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만연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대국이나 1인당 GDP가 2012년 1,600달러(추정치) 수준에 불과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절대 빈곤층이 총 인구의 약 60%에 달함. 이는 2004년 기준 54.7%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7% 안팎의 지속적인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을 반증함.
- UNDP는 나이지리아가 극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극빈층으로 나뉘어 세계에서 부의 분배가 가장 불공평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한바 있음.
-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인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음. 2011년 6월 Dimeji Bankola 전 국회의장이 수백만 달러의 정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2007년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처벌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 지수는 27점으로 176개국 중 139위를 차지하여 전년 143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패가 심한 수준임.

### □ 종족-종교적 갈등 상황 지속

- 나이지리아는 250여 개의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북부 이슬람과 남부 기독교로 양분되어 종족·종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유혈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북부와 남부의 교차점에 위치한 Plateau 주의 Jos에서는 2010년 12월에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 유혈 충돌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과격단체 소행으로 추정되는 교회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 청년들의 보복 공격 등으로 최소 36명이 사망하는 등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에 의한 테러 공격 빈발**

-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 근거지를 둔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은 서구식 교육·문화를 죄악시하고 이슬람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하며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을 주도하고 있음.
- 2011년 11월 북동부 Borno 주와 Yobe 주에서 150여 명을 숨지게 한 연쇄 폭탄 테러, 8월에 수도 아부자(Abuja) 소재 유엔 건물에 대한 차량 폭탄 테러, 6월 중순에 아부자의 경찰 본부에 대한 폭탄 테러 공격, 12월에 상당 연쇄 폭탄 테러 등을 주도하였음.
- 2012년 4월 북부 도시 Kano에서 무차별 총격, 6월 경찰서 폭탄 테러 공격에 이어 6월 18~19일에는 Yobe 주에서 정부군과 총격전이 벌어져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24시간 동안 통행금지령을 선포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었음.
- 2013년 1월 Boko Haram 내의 온건파 세력이 정부군과의 휴전을 선언함에 따라 Boko Haram의 내부 분열에 의한 세력 약화를 기대하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2월 북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납치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Yobe 주에서 북한인 의사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이어지는 등 (Boko Haram의 소행으로 추정) 치안 불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니제르 델타 반군 세력의 공격으로 이 지역의 치안 불안 지속**

-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의 대부분은 니제르 델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이 지역의 치안 안정 여부가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니제르델타해방운동(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MEND) 등 반군 세력은 석유 이권의 배분을 요구하며 석유생산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음. 그 결과 원유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어,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07년 235만 배럴에서 2008년 217만 배럴, 2009년 212만 배럴로 계속 감소하였음.
- 정부는 니제르 델타 지역의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이 지역 반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사면 프로그램(amnesty program)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 성과를 거두면서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10년 245만 배럴, 2011년 246만 배럴로 증가하였으나, 지금도 일부 반군의 석유시설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반군 세력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경우 원유 생산에 다시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큼.

### 3. 국제관계

#### □ 최대 원유 수출대상국인 미국과의 우호 관계 지속

- 미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에너지 자원 부국인 나이지리아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으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나이지리아는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2011년 나이지리아 수출의 26.2%가 미국으로의 수출) 나이지리아산 원유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미국 수출입은행은 2011년 10월에 나이지리아의 전력산업 투자를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차관지원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함.

#### □ 중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 중국은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Sinopec 등이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전 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나이지리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면서 기 진출한 Chevron, ExxonMobil, Eni, Total 등 서방 석유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음.
- 2012년 초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유로화를 매각하고 홍콩으로부터 위안화를 매입하여 전체 외환보유액 중 약 1.4%를 위안화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그 비율을 10%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 밝혔음.
- 이는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주요 원유 수출대상국인 데다, 나이지리아의 정미공장 건설 및 공항 개발 등의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는 등 최근 양국간 교역관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보임.

## □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 역할 담당

-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내의 리더격인 국가이자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지역 내 분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라이베리아 및 시에라리온 사태에 개입하여 국제적 역할을 공인받은 바 있음. 지난 1월에는 3,000여명의 병력을 ECOWAS 평화 유지군 자격으로 말리 내전에 파병하였음.
- 원유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Bakassi 반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10여 년간 지속된 인접국 카메룬과의 영토 분쟁은 UN의 중재하에 2008년 카메룬에 이 지역을 이양하면서 관계도 개선되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2005년 파리 클럽과의 채무재조정으로 외채 탕감

- 나이지리아는 2005년 파리 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합의를 통해 2005년 73억 달러, 2006년 109억 달러 등 총 182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았음.

#### □ 채무재조정 이후 외채상환태도 개선 추세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중장기 외채의 연체비율이 2009년 6월 말 2.7%에서 2011년 6월 말 2.3%, 2012년 6월 말 2.1%로 점차 하락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개선 추세에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OECD 5등급 유지, S&P BB- 등급으로 상승

- OECD는 2010년 10월에 개최한 CRE 회의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지표 유지 및 외채상환태도 개선 등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2년 10월 CRE 회의에서도 계속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였음.



- S&P와 Fitch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나란히 BB-로 유지하고 있음. 2013년 1월 S&P는 석유 부문의 양호한 수익, 비석유 부문의 높은 성장률, 낮은 공공부채, 안정적인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B+에서 BB-로 상향 조정하였음.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2.10.)	5등급 (2011.10.)
S&P	BB- (2013. 1.)	B+ (2012. 1.)
Moody's	Ba3 (2012.11.)	-
Fitch	BB- (2012.10.)	BB- (2011.10.)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STIPP)으로 인수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0년 2월 22일 (북한과의 수교: 1976년 6월 25일)
-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2), 해운협정(1989), 투자보장협정(1998)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2위의 교역대상국

- 나이지리아는 남아공에 이어 우리나라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2위의 교역대상국으로, 201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33억 달러에 달함. 수출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를 중심으로 약 25억 달러, 수입은 천연가스, LPG를 중심으로 약 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제10위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우리나라 천연가스 총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한·나이지리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805	2,487	854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수 입	572	799	1,465	천연가스, LPG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2년 12월 누계, 총투자 기준): 32건, 1억 9,556만달러

## V. 종합 의견

-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의 원유와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농업, 금융 등 비석유 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7%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2012년에는 인프라 부족과 홍수 발생, 전국적 파업 사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6%로 둔화되었으나 상품수지 흑자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2011년 3.6% → 2012년 5.0%) 2013년에도 비석유 부문의 견실한 성장으로 6.8~7.0%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2011년 대선 직후의 극심한 혼란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인민민주당 내 북부 지역 출신들의 불만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야당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음. 현 정부는 석유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열악한 인프라, 높은 실업률, 인종·종교간 갈등,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와 니제르 델타 반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그러나 최근 Boko Haram 내 온건파의 휴전 선언 등 희망적인 변화도 관측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외환보유액은 미국 등으로부터의 해외원조자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약 3.4%, DSR은 0.6%로 단기간의 외채 상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도 최근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5720)

E-mail : oki1122@koreaexim.go.kr